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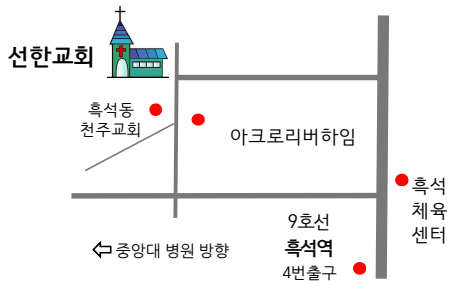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약 2:8)

기 독 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 독 문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찬 양 과 경 배	436장 (통일찬송가 493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2장 1~9절			삼상 8:1~9
설 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루디아회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후		인도자: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말 씀	요한복음 4장 23~24절	
설 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임춘배 목사)	
찬 양	95장 (통일찬송가 82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시편 91편 1~16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청년/청소년부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 신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조이앤드 찬양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3. 부 흥 회	26일(금) 저녁 8시, 27일(토) 오후 3시, 28일(주일) 오후 3시 * 주제: 회복의 드라마 * 강사: 유관재 목사(성광침례교회 담임, 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 부흥회를 위한 기도: 15일(월)~25일(목) 저녁 8시 [개인/교회]	
4. 해 외 선 교	해외선교 물품 모음 1) 옷 (겨울 옷 가능), 신발, 공(농구공, 축구공 등) 2) 학용품: 가방, 사인펜, 볼펜, 매직펜, 노트, 연필, 지우개 등 3) 악기: 리코더, 캐스터네츠, 탬버린 등 * 문의: 윤 영 전도사	
5. 대 심 방	대심방 기간입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	--

찬송 : '너 성결키 위해' 420장(통212)

본문 : 여호수아 3장 1~13절

말씀 :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문으로 예수 믿는 가정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앞둔 당시는 강이 범람하는 우기였습니다. 깊이가 3~4m, 폭이 약 2km로 물살이 강한 이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요단강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한 걸까요.

가나안 정복은 광야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4절) 인간의 힘과 지혜를 믿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걸음은 구체적으로 어때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말씀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3절) 내 생각과 판단 대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의 뒤를 잘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2000규빗 간격을 두라고 합니다.(4절)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900m 거리를 두고 가까이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잘 챙기라거나 전략과 전술을 기억하라는 말 대신 "성결하라"고 주문합니다.(5절)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성결을 지키는 건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주님이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의 뒤만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약 2:1~9)

서 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차별에 대한 교훈

- (1) 차별하는 모습: ①금 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2,3절) ②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2,3절)
- (2)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①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심(5절) ②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감(6절) ③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4절) ④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함(9절)
- (3)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8절)

본 론

2. 교훈

- (1) 나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 (2)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 (3)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결 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정구원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희상 집사
주 방 봉 사	청년/청소년부	요셉회

매일 Q.T.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완공한 성전	날짜 : 4월 1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본문	열왕기상 6:14~38		
말씀요약	솔로몬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을 입히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습니다. 온 성전 안을 금으로 입히고 내외소 사방 벽에 그룹과 종려, 핀 꽃 형상을 새기고 지성소를 만들고 문을 만듭니다. 내소에는 두 그룹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목상질문 1	성전 내부 벽과 지성소 6:14~28 지성소 가운데 둔 두 그룹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성전 건축 완성 6:29~38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솔로몬은 ‘금’으로 표현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6장 21~22절 솔로몬은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금으로 입힙니다. 금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빛을 반사함으로 빛납니다. 성소의 금색 빛은 아름답고 장엄한 외관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 있는 ‘언약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비추는 빛을 반사한 빛입니다. 성도는 여러 자격과 조건을 갖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가꾸길 원합니다. 제 삶 중심에 언약의 말씀을 펼쳐 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며 살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찬양과 기도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 9)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창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 또한 악화되어 허리디스크가 도졌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의 사정을 들은 한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었지만, 아내 되는 성도님은 집사님의 권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뿐 아니라 새벽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얼마 후 신기하게도 창업의 길이 열렸고, 남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일이 급속도로 진척되었으며, 구하기 힘든 직원도 성실한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업에 문외한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열왕기상 8:1~11
목상포인트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를 기리는 초막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율법(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헌신의 예를 드리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예배를 중시하던 다윗의 신앙 유산을 계승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으니,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중심 되는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관찰과 묵상	성전 건축 후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것은 무엇인가요?(1~2절)
적용하기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함께 기도하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솔로몬의 성전 완공, 하나님 약속의 성취	날짜 : 4월 19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끄리어		
본문	열왕기상 8:12~21		
말씀요약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처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8:12~13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 나의 내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목상질문 2	건축 경위 연설 8:14~21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8장 19~20절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한 거룩한 부담을 짊어진 솔로몬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 영광을 향해 걷는 거룩한 걸음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에 담기게 하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저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날짜 : 4월 16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열왕기상 7:1~22		
말씀요약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 준공합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와 귀하고 다듬은 돌로 자신의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또 늦 일에 재능 있는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 모든 공사를 맡깁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주랑 앞에 늦 기둥 둘을 만들어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 합니다.		
목상질문 1	백향목 궁전을 지은 솔로몬 7:1~12 솔로몬이 지은 궁전의 규모와 호화로움은 어느 정도였나요? 하나님이 내게 부와 영광을 주신다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목상질문 2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9:13~22 두 늦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7장 21절 거대한 성전과 왕궁을 지은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친 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일 같으나 실제로 그 모든 일은 준비하고 시작한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소서. 혼자 아등바등하지 않도록 함께 일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소서.		

매일 Q.T.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 기구들	날짜 : 4월 17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본문	열왕기상 7:23~51		
말씀요약	히람이 놋으로 소 열두 마리가 받치는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받침 수레와 물두멍 열 개를 만들고, 부삽과 대접도 만듭니다. 솔로몬이 금단,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잔대, 정금 대접 등 하나님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 다윗이 드렸던 은금 기구들을 성전 공간에 둡니다.		
묵상질문 1	성전의 놋 기구들 7:23~47 많은 물을 담아 두던 바다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해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성전의 금기구들 7:48~51 마지막에 솔로몬이 다윗의 예물을 성전에 바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모 세대가 계획한 것을 내가 실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7장 38절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놋대야입니다. 성전 마당 한쪽에는 물두멍 열 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출 30:19~20).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제물이 되셨고, 흠 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일상에서 거룩함과 경건의 빛을 환하게 밝힙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Q.T.		성전에 가득한 영광,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날짜 : 4월 18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본문	열왕기상 8:1~11		
말씀요약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궐을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올리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궐과 회막, 성막 인의 모든 기구를 메고 성전에 올라가니 솔로몬과 회중이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두 돌판이 든 언약궐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여놓고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묵상질문 1	언약궐을 옮기는 솔로몬 8:1~5 솔로몬이 언약궐을 성전으로 옮긴 때는 어느 절기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주로 어떤 준비를 하나요?		
묵상질문 2	언약궐을 성전에 안치함 8:6~11 제사장이 언약궐을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징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8장 9, 11절 솔로몬은 최상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성전의 거대한 규모, 화려한 장식, 값비싼 기물 등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만 성전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곧 성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성전이 완공되자 가장 먼저 언약궐을 그곳에 들여놓는 솔로몬을 보며,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게 하소서.		